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17)

##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든 자의 말을 듣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만든 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만든 자가 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마이크를 만든 자는 마이크가 고장 났으면 수리할 뿐 아니라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교육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마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의 새끼는 개요, 소의 새끼는 소입니다. 사람의 아들, 딸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호4:6). 지식은 아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고철덩이에 불과합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밤잠을 설치고 자존심을 버리면서도 돈을 모읍니다. 왜냐? 돈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만물이 다 우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 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6:3).

###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엄마가 했던 걸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아버지, 엄마가 했던 걸 다 하고, 아버지, 엄마보다 더 유능해지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노릇하며 가난과 병과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사람의 자녀도 아니고, 짐승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모델이다. 나를 벤치마킹해라. 나를 모방하라는 겁니다. 내가 샘플이라는 겁니다. 너희와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이겁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은 나는 죄가 없고 너희는 죄가 있는데,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렸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 받고, 내가 받은 성령을 받아서 너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1:12).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도 지는 겁니다. 내

아들, 딸을 왜 책임집니까? 낳았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TV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뭐라고 광고합니까? ‘쓰다가 고장이 나거들랑 전화로 서비스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서비스맨이 달려가서 고장 난 것을 고쳐줍니다.’ 하지 않습니까? 고장 났을 때 전화해야 서비스맨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나 천사들이나 주님이 영으로 와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어 있 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못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병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곧 못살 권리가 없다 이겁니다. 병들 권리도, 괴로워할 권리도 없다 이겁니다. 그 권리를 예수께서 다 빼앗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린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를 알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려면 열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불이나 미국 사람

이 가지고 있는 100불이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주머니 속에 있을 땐 죽은 돈입니다. 그것이 주머니에서 나와야만 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책 속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필리핀의 곤잘레스 목사가 유럽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서 비자를 발급 받지 못했답니다. 사정을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그분의 도시에 가서 집회

도 했었고, 한국의 목회자 영성세미나에도 참석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운 대로 그 자리에서 하

나 님께 기도했 답니다. “하나님, 내가 미리 필리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유럽에 갔다가 한국에 올 일이 생겨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비자를 발급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과시켜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민국 직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사인만 하면 되는 일 아니요?” 그랬더니 비자 사인을 해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있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의 기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두가 안 된다 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귀는 죽는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세상의 법으로 위협합니다. “암이아,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네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야, 포기해.” 그런데 새소식이 왔습니다. 어디서? 하늘 나라에서 ‘너는 산다’는 새 소식이 왔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불가능이 없다’는 새 소식이 왔습니다. 마귀의 세상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권세를 잃었습니다. 마귀의 죽는다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다는 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16:33). 마귀의 종노릇하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면 복권된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였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말미암아 복권된 역사가 있듯이, 마귀는 비록 우리의 죄를 빌미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단번의 희생으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면 복권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음의 선전들이 그랬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세상을 향해 천국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분을 망각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는 만사형통이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 왕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날마다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러나 우리 인격과 의지를 존중하시므로 우리 고백을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만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반대로 귀신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고 침범한다. 원치 않아도 들어와서 병과 고통과 실패로 괴롭히는 무례하고 더러운 존재이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시68:19)라고 말씀하신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원수를 이길 힘을 공급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환영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병을 고치지 않으셨으니(마13:53~58), 주님을 환영하고 순종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은 ‘예수는 너를 섬기고 도우러 왔다’라는 것이요, 또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하나

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겁고 어려운 짐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찾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 분은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신다고 약속하셨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한다. 내 집을 내가 지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걱정과 근심의 짐을 주님께 맡긴다면 그 분은 날마다 우리 집을 가져가시고 구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고통 받는 것을 슬퍼하시고 자신의 삶과 피를 주셨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당신의 가정에 그분을 초청하시라! 매 역사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왕상20:28)는 구원의 고백이 나오길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과 의지를 존중하시며, 온유하시고 신사적인 우리 아버지이시다.

신기류 목사

:: 성경에세이 ::

## 조급하지 말게

여보게!

양자강을 건너던 배 안에서 젊은이와 노를 젓던 노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대네. 젊은이는 상대가 노인인데도 봐주는 기색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지. 갈수록 목청이 커지니 배 주인인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했네. 다른 손님도 많으니 잠시 조용하라고, 그러면 내가 저쪽 섬에 배를 댈 테니 거기서 담판을 짓자고. 젊은이는 씩씩거리며 그러자고 했지. 노인이 섬 쪽으로 배를 대는데, 성질이 급한 젊은이가 섬 가까이 가자 배에서 먼저 펄쩍 뛰어나려 제법 깊은 물을 건너 섬으로 먼저 들어갔네. 그리고는 노인을 향해 어서 내리라고 소리를 질러댔지. 어서 와 한판 뜨자는 거였어. 그런데 노인은 갑자기 뱃머리를 획 돌리더니 노를 세계 저어 섬 반대쪽으로 가버렸지 된가. 젊은이는 섬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지만, 누구 하나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은가? 조급하면 망한다는 걸 말하는 걸세.

여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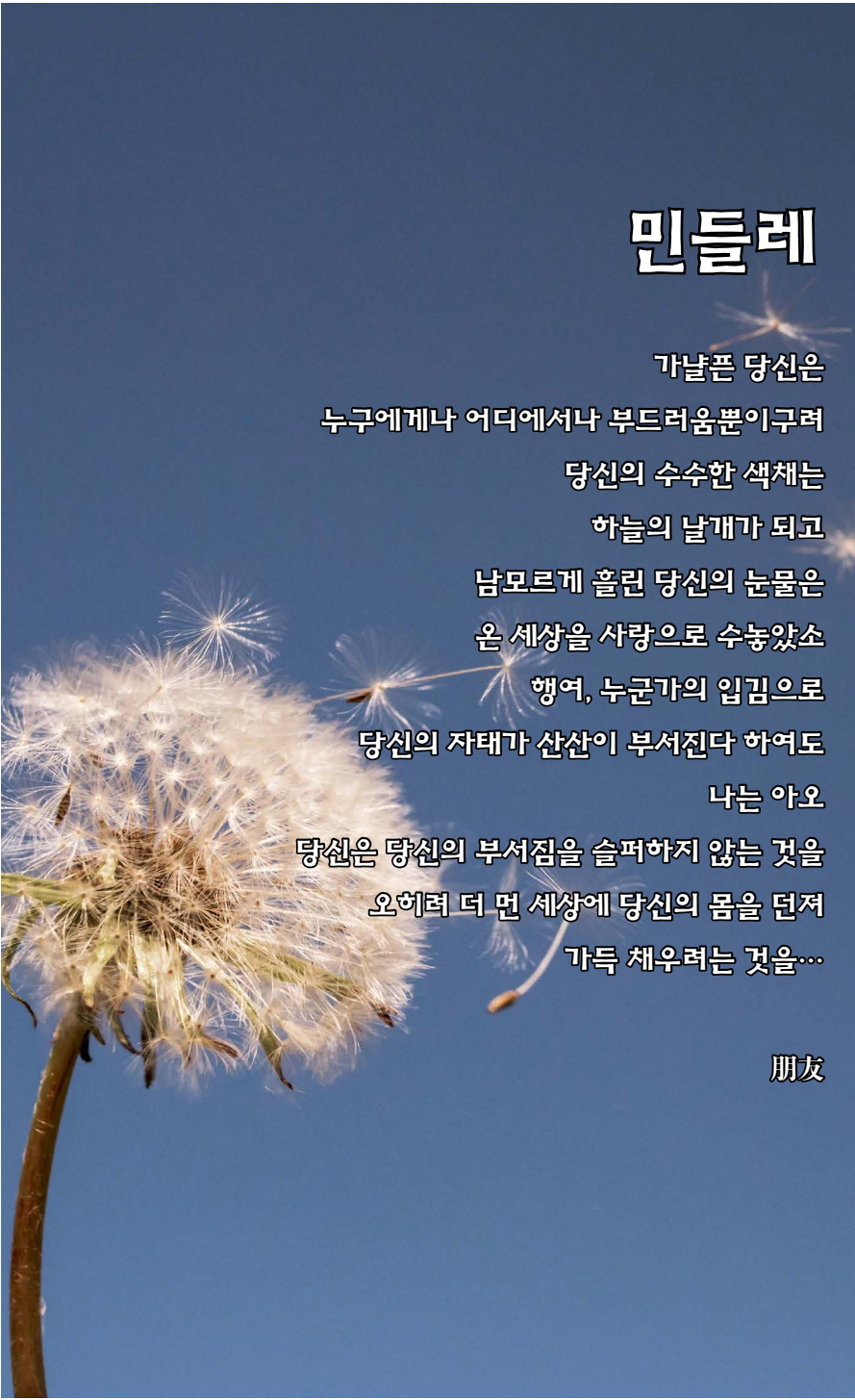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조급한 면이 있지.

음식점에 가서 각기 다른 것을 시키면 늦게 나올까 봐 똑같은 음식으로 통일해서 시키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미리부터 손을 넣고 꺼낼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뿐이라고 하더군. 뭐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다 좋은 것만도 아니지. 사람은 자고로 좀 여유가 있어야 멋있고, 실수도 하지 않는다네. 급히 먹는 밤이 체하고, 급히 신은 신발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거든. 왜 사람들이 조급하는지 아는가? 그건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이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네. 여유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조급하지. 하나님께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게를 원하지. 뭐든 바로 찾고, 문자가 바로 오듯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오길 희망한다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아구까지 찰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래네.

조급이 죄라고 했네. 그러니 조급하지 말고 매사 여유를 가지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21:5).

봉우



## 민들레

가냘픈 당신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부드러움뿐이구려  
당신의 수수한 색채는  
하늘의 날개가 되고  
남모르게 흘린 당신의 눈물은  
온 세상을 사랑으로 수놓았소  
행여, 누군가의 입김으로  
당신의 자태가 산산이 부서진다 하여도  
나는 아오  
당신은 당신의 부서짐을 슬퍼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먼 세상에 당신의 몸을 던져  
가득 채우려는 것을...

朋友

:: 생명의 말씀 ::

## 잘살아보세!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와 민관단체, 동민들까지 열심히 일했던 새마을운동을 필자는 생생히 기억한다.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지금의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잘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잘사는 것은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땅과의 관계, 농작물과의 관계, 짐승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 그렇게 못살 때에는 모든 관계가 잘못되어있었다.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땅을 일구지 않았고, 농작물을 심어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짐승들이 있어도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돕고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살았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신을 섬기고 보름달이나 고목나무 밑에서 고사를 지내면서 복을 달라고 빌었었다. 그 결과 탐관오리들이 득실거렸고, 삼삼오오 모여서 노름이나 하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싸웠다. 그러니까 못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러나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잘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모든 국민들이 바른 관계를 맺었으니가 잘살게 되었다.

잘산다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다. 즉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를 때 누구든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목사님은 늘 자신에게 인색한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고 하셨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나의 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을 원수가 아닌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열 사람의 동지보다 한 사람의 원수를 두지 말라’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생생하다.

율법에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잘살아보자!

임택함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참된 깨달음 ::

# 겨울이 와야, 소나무는 발견된다!

논어에 ‘날씨가 추워져야 비로소 소나무가 지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 모두가 푸른 여름, 열매 가득한 가을에는 화려한 꽃나무, 풍성한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칭송받습니다. 그 시절 소나무는 화려한 꽃도, 근사한 열매도 없이 노란 가루나 날리며, 빼죽이는 잎을 흔드는 못난 나무로 평가받죠.

하지만, 겨울을 맞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잎을 떨구고 동면에 들어가는 나무들 사이에서 찬바람이 불고, 눈이 쏟아져도 여전히 그 자리를 푸르게 지키는 소나무를 사람들은 그제야 발견합니다. 난세에 비로소 영웅이 탄생하고, 진짜 내편은 상황이 어려워야 알 수 있다고 했나요? 그렇게 발견되기까지 소나무는 참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여전히 푸르기 위해 힘껏 바위를 뚫어 뿌리를 내리고, 몇 방울 되지 않는 새벽이슬을 머금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을 테니까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소나무들을 발견합니

다. 구약시대 부잣집 청년이었던 요셉은 노예 신분의 나락에 떨어졌어도 그곳에서 집사로 최선을 다하며 한 집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여전히 성실하게 감옥행정을 담당하며 국가기관 운영의 비결을 습득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그는 단지 노예고, 죄수였지만, 7년 대풍년과 대흉년이라는 환란 앞에서 그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할 시들지 않는 소나무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죽기까지 따르리라 맹세했던 제자들과 돈 관리를 맡을 만큼 유능해 보이는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예상 밖으로 예수를 판자는 가롯 유다였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추운 겨울 같은 순간에 예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해 장사를 치른 것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제자임을 숨겼던 인물이지만, 사실은 선하고, 의로우

며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던 자였습니다(눅23:50~51). 예수께서 메시아로 칭송받으며 사람들이 무리 지어 따를 때, 요셉은 눈에 띄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예수의 제자임을 숨긴다고 다른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지탄받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 즉 자신의 부와 사회적 명예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는 참으로 귀한 소나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띄지 않아도, 화려한 모양이 아니어도 조용히 주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나무 같은 성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발견하실 것이며, 영적 추위를 맞은 이 시대에 당신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 푸르게 빛나고 있다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하인명 집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학창 시절, 우리 교단의 지교회가 없던 지역에서 타 교단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열심 덕분에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를 통해 늘 믿음의 설교를 듣다 보니,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그 교회 고등부에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회장은 반드시 고3 중에 선출했는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집과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저는 교회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토요일만 되면 곧장 달려가 주일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고등부 예배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몸은 피곤해도 즐거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방학이 되어 교회 고등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고등부 회장은 당연히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도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명목상 자율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종종 크리스천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선생님께 허락을 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에도 선생님은 “맘대로 하십시오!” 하

고 화를 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선생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었지만, 선생님이 노여워하시더라도 가야 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니, 선생님께서 ‘고3 귀한 시간에 교회나 쫓아다니는 정신 나간 놈이 있다’고 저를 비난하고 다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먼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인사에 예상 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를 못 때리겠다.” 비록 비꼬는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생각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어느새 고3 마지막 기말고사가 돌아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았습니다. 지난 글에 적었듯이, 500명 중에 300등으로 입학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에서 3~4등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교실에 성적표가 붙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석차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다. 나서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굳이 다른 반까지 돌아다니면서 석차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곧 제가 전교 1등이라는 사실을 온 학교에 소문났습니다. 이전에 선생님께서 ‘귀한 시간에 교회나 쫓아다니는 정신 나간 고3’이라고 제대로 홍보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셨습니다. 몇 달 후, 교회 고등부 졸업예

배 때, 대표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빗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등 하게 해달라고 구할 만한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여 바란 적이 없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깜짝 선물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꿈과 소원이 생겨납니다. 꿈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에 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려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아닐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가진 것만을 탐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꿈과 소원이라면 하나님께 내어놓기 부끄러울 테니 말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창문을 열어보았을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어 하나님께서 늘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21:15).

정명관  
v-777@naver.com

# 빼앗기지 마세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로 확산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정, 개인, 교회, 예배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게 정직한 현실이다. 그로 인해 지금 우리 마음은 전쟁 중이다. 악한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예배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에 과연 누가 영적으로 살아남을까? 끝까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그로 인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를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다. 다윗도 인간인자라 실수도 하고, 간음, 살인, 너무도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질렀지만, 죽을 때에 다윗의 생애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었다”(대상29:28). 무슨 뜻인가? 끝이 아름다웠다는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도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그렇다. 지키지 않으면 다 빼앗긴다. 사람의 마음은 그냥 버려두면 엉망이므로 내가 다스려야 한다(막7:21~23)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건강 지키는데 관심이 많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사명감으로 믿음과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자.

김정옥 전도사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3~4절)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다